
2022

Porter Prize Excellence in CSV

제9회 CSV·ESG 포터상 우수기업 사례집



한국유미코아촉매

Let's go for Zero,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 및 산업용 촉매 생산으로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고객사와 함께 Let's go for Zero를 목표로 더욱 뛰어난 성능의 배기가스 정화장치를 생산하고, 현재 및 향후 친환경 관련 법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Background(배경)

유미코아는 세계적인 소재 및 재활용 기술을 가진 그룹으로 유해한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 배터리 양극재를 생산으로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하며, 폐자원속의 귀금속을 재활용한다. 유미코아의 소재 및 서비스는 클린 모빌리티와 재활용을 위한 미래의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유미코아는 모든 차량플랫폼 유형에 대해 소재기술을 제공하고 소싱부터 재활용까지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순환 루프 솔루션을 제공한다. 비즈니스 목표와 성장 목표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설정한다. 유미코아는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위한 "Let's go for Zero" 글로벌 ESG 전략 목표를 설정하여 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Activities

1) 재사용 에너지 확대: 주력 생산품인 자동차용 촉매 생산시설은 온산에 소재하고 있으며, 송도에는 본사와 최첨단 기술연구소, 수소연료전지 촉매 생산시설이 위치해 있다. 현재 한국유미코아촉매의 재사용에너지(Renewable Energy) 전환율은 약 8%의 수준이며, 회사 보유 차량 및 각종 장비를 전기, 연료 전지로 변경하였다.

2) 환경 영향 감축: 물 재활용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온산공장에서 사용하는 205톤 중 65%가 재활용되었으며, 송도 공장에서 사용하는 595톤중 20%가 재활용되었다. 공기 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 스크러버, 필터를 설치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유미코아 X 겐트대학교: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연구 및 사업화 협력, 정보 공유 및 자문, 장학금, 인턴십, 지역사회 공헌 사업 추진을 약속하였다.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미래 우수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Future(전망)

유미코아는 35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삼고 25년까지 재활용 에너지 20%, 공기오염 20% 감축, 물 소비 10% 감축, 재활용 10% 증가의 중간 목표를 제시하여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양극재 최첨단 기술 R&D 센터를 설립하여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친환경 이동수단을 위한 소재 및 리사이클 분야에서 업계 선도를 목표로 혁신 기술 및 생산능력에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 나가고 있다.